

서울시 생계상인들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

— 생계진열만을 단속한다면 문제없어 —

76년이후 어떤면에서 도계유통의 가장 큰 저항세력인 생계상들은 이제 어떠한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생계업체에 오랜기간 종사하고 이업체를 잘 알고 있으며 이름 밝히기를 거절하는 어느 생계상을 만나 보았다.

기자 :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A : 근 일년동안 단속이 심하지 않아 계속 생계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없고 소비가 증가하니까 생계 상인 수가 증가해서 현재 서울에는 약 3000 여 가구가 될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경쟁이 심해 장사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기자 : 현재 도계품이 60%, 생계가 40%의 비율로 거래된다고 하는데...

A : 법시행 이전에도 대중 소비처 즉 음식점, 센타에는 도계품으로 유통되어 왔었습니다. 도계유통량이 증가한것이 아니고 요즈음 일부상인들이 자기집에서 도계하기가 불편한 사람들은 도계장에서 위탁도계를 하는데 이 경우가 더 경비가 쌀 수도 있습니다.

기자 : 더 쌀데도 밀도계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 도계장에서 요즈음 같은 날씨에 오래 기다리다 보면 폐사가 많이 나오고 음식점에서는 도제한지 얼마안되는 싱싱한 닭을 원하고 있으며 특히 도계시설이 나쁜곳에서 도계하면 품질이 떨어져 음식점에서 납품을 받지 않습니다. 손으로 잡은 닭을 원하기 때문에

밀도계를 하게 됩니다.

생계상인들 도계품 유통 준비되어 있어

기자 : 서울을 제외한 인천, 수원, 부산 등 모두 잘되고 있는데 서울은 왜 안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A : 잘되고 있는 지역은 모두다 과거에 유통을 담당했던 생계상인들이 주축이 되었기 때문에 잘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경우는 76년부터 인식도 잘 안되었고 도계시설도 부족한데다 지금까지 유통을 담당했던 생계상인들을 일시에 그만두라고 하니 크게 반발했었습니다.

이제 생계상들도 도계품도 팔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과거처럼 신도기업이나, 가금처리협회 대리점 등 경쟁이 대립되는 세력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생계상인들이 뭉쳐서 도계유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이제 마음놓고 장사를 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생계진열만 단속한다면 지금도 시행에는 문제는 없어

기자 : 앞으로 또 강력한 단속이 시행된다면 과거처럼 모두 문을 닫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A : 이제는 많이 상인들의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단속도 문제가 있어 솔직히 단속시에 단속 나온 구청직원이 도계법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경우도 있어 명분서는 단속이 안되고 상인들은 단속을 하면 팔지 않는 도계를 쇼케이스에 진열도 하기는 합니다. 단속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인을 찍은 도계장에서 도제한 닭만 팔리면 또 과거와 같이 반발하지만 생계만 진열하지 말라던 다 그대로 시행될 것입니다.

아직도 가정주부나 음식점에서 손으로 잡은 닭을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기자 : 양계장에서 생계상인들의 횡포가 심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A : 큰 중상들은 그래도 체면 때문에 정당한 시세에 정당한 거래를 하지만 소규모 상인의 경우에는 약속한 날짜에 닭을 가져가지 않

고 질병을 핑계해서 아주 헐값으로 사가려고 생산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기자 : 생계상들이 합자해서 도계장을 만들 계획 같은것은 없습니까?

A : 현재 기금을 모으고 있는데 상당한 액수가 적립된 것 같습니다.

일설에는 기금을 모았다가 단속도 뜸하고 생계판매를 하니까 도로 나누어 가졌다는 말도 있습니다.

기자 :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에 단속이 있더라도 과거처럼 유통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생산자와 협조하여 도계유통이 되는 방향으로 같이 노력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취재 : 남두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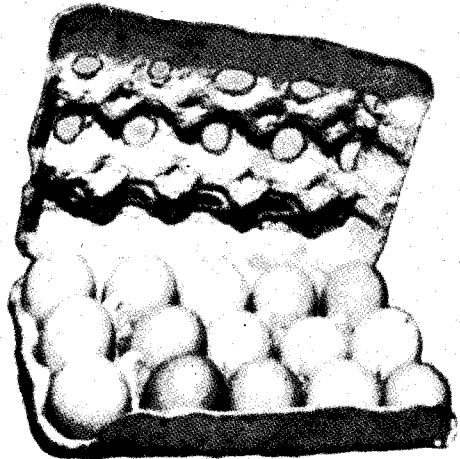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

위생적인 종이난좌를 사용합시다

- 10개들이 난좌 } 가정용
- 20개들이 난좌 } 가정용
- 30개들이 왕란, 종란용 난좌
- 30개들이 보통난좌

규격 종이난좌는

1. 신선도 유지
2. 부화율 향상
3. 질병 예방
4. 파란 방지



80년대는 과학적인 경영시대

한국성형제지공업사

경기도 성남시 고등동 98-1 (전화) 고등우체국 77번
야간 : 1342 (성남) 3-6239